특집 : 韓國經濟學 敎育

經濟原論 敎育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安 國 臣**

Ⅰ. 머리말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기초학문이다. 작게는 일상생활에서의 합리적 선택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크게는 經世濟民의 비전을 그린다. 더 크게는 지구촌 경제 전체적으로 얽혀 일어나는 각종 생산요소의 국제이동과 세계적인 환경·빈부격차·금융문제 등도 다룬다.

경제학이 사회과학의 기초를 이룬다면 경제원론은 경제학의 기초를 이룬다. 대학생들이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접하게 되는 것이 경제(학)원론이다.[1] 따라서 경제원론이 무엇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경제원론 교육의 큰 흐름은 방대한 교과서를 교재로 삼아 빡빡한 강의 일정하에 경제학에서의 주요개념과 교재 전반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많은 수강학생들이 경제학은 어렵고 재미없으며 실용성이 없는 학문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경제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과 경제원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 본 논문은 "2001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학회 주관의 분과에서 발표된 논문임.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정우식·홍기택 교수, 세미나에서 많은 좋은 논평을 해준 손정식·홍덕기 교수에게 사의를 표한다.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요즘에는 경제원론 대신 경제학개론, 경제학입문, 경제의 이해 등 다른 여러 말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한 학기로 끝나는 교양과목인 경우 더 그렇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들을 포괄하여 경제원론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다. 교육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에게는 경제학이 사양학문, 경제원론이 사양과목이 된 것이다. 경제학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우리 경제학자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지만 이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갈수록 각종 자격시험의 필수과목에서 빠지는 상황에서 종전처럼 수험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경제원론을 택해야 했던 불가피성마저 사라지고 있다.

갈수록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현대경제사회에서 국내외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경제원칙에 맞게 생활하는 경제인의 슬기는 예전보다 더 크게 요구된다. 최소한 경제원론만큼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꼭 들어야 할 과목이다. 그런데 현실은 갈수록 대다수 대학생들이 기피하는 과목이 되고 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 것인가?

해답은 우리 경제학자들이 즐겨 찾는 '제약하의 최적화'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신세대들이 어려운 것을 싫어하고 감각적인 것과 컴퓨터를 좋아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 현실제약 조건하에 가급적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면서 컴퓨터를 필수 교육기자재로 활용하여 교육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경제학이 현대 경제생활을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처신하는 데에 중요한 만큼 응분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약 그 자체를 경제학에 우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 경제원론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점검한다. 전통적인 경제원론의 토픽 중 최소한의 정수를 비근한 시사토픽 및 현대경제의 특징인 네트워크 경제토픽과 함께 다루는 한편 무엇보다도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학생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 교육시켜야 한다고 논한다.

제Ⅲ절에서는 경제원론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다룬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당연하고도 평범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명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룬다.

제Ⅳ절에서는 경제원론과 나아가 경제학 과목들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제약을 개편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한다. 마지막 제Ⅴ절은 맺음말로 가름한다.

Ⅱ. 經濟原論, 무엇을 敎育할 것인가?

경제원론을 더 이상 중급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압축시킨 내용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예전에는 경제원론이 많은 자격시험의 필수과목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주마간산의 압축교육이 나름대로 수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수요가 없어졌다. 또한 압축교육이 경제원론을 진도위주로 딱딱하고 어렵고 재미없게 만들기 쉽다. 따라서 옛 교육의 틀을 완전히 벗어 던질 때가 되었다.

물론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핵심 내용은 제대로 다루어야 한다. 경제학을 경제학으로 만드는 미시·거시 경제학의 핵심 내용을 최소한으로 다루되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전통적인 내용들과 연관해서 몇 가지 것들을 더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아래에서는 최소한의 전통적인 경제원론 토픽, 기본적인 경제원리, 경제시사토픽, 정보사회와 인터넷의 본질,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1. 최소한의 전통적인 경제원론 토픽

지금까지 으레 해 온 경제원론의 압축교육에는 경제원론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 토픽을 중급수준에 준하게 너무 미주알 고주알 자세히 가르치려는 의욕과 강박감이 있었다. 핵심토픽을 가르치되 미주알 고주알 디테일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경제원론에서 계속 가르쳐야 할 최소한의 핵심 토픽은 무엇인가?

① 가계의 합리적인 소비활동, ② 기업의 합리적인 생산활동, ③ 가계와 기업들이 어우러지는 경쟁시장에서의 자원배분과 그 효율성, ④ 독과점시장의 비효율성과 정부정책, ⑤ 가계와 기업의 역할이 생산물시장과는 정반대로 바뀌는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자원배분과 소득분배, ⑥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등은 경제원론에서 다루어야 할 최소한의 핵심적인 미시경제학 부분이다. ① 경제의 순환과 주요 거시경제지표들, ② 재정과 재정정책, 통화금융과 그 정책, ③ 총수요·총공급의 이론과 경제안정화정책, ④ 실업과 인플레이션, 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⑥ 국제무역과 국제경제질서, ⑦ 개방경제하의 경제정책 등은 경제원론에서 다루어야 할 최소한의 핵심적인 거시경제학 부분이다. 최소한 이 토픽들은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경제원론 교육과 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 기본적인 경제원리

위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핵심토픽을 중급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 준하게 미주알 고주알 가르치는 대신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확인시켜 주는 수단으로 다룬다.

경제학이 몇 가지 핵심적인 기본원리 위에 서 있다는 것, 이 원리들만 확실히 이해하고 폭넓게 응용할 수 있으면 현대경제생활에 슬기롭게 적응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Mankiw(1997)는 『경제원론』에서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2]를 제1장에 제시하고, 경제원론이 다루는 전통적인 토픽들 속에 이 기본원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통되고 있는가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꼭 그 10대 원리로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요약하고 대표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본원리들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기본원리들을 반복 학습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운 경제원론 내용이자 효율적인 교육방법이다.

안국신(2000)은 Mankiw의 경제학의 10대 원리를 주로 차용하고, 이토 모토시게(1998)의 시장의 법칙 28가지를 원용하여 경제학의 세 가지 기본전제와 열 가지 주요원리를 작성해 보았다.[3]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 기본전제와 주요원리를 구분할 수도 있고 주요원리로 한꺼번에 뭉뚱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분류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핵심적인 경제원리들을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확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도 좋은 일이다.

---

2) Mankiw가 제시한 10대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9.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면 물가는 상승한다.
10.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3) 훨씬 자명한 명제라 할 수 있는 1. 세상에 공짜는 없다, 2. 자원은 희소하다, 3.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고자)한다를 세 가지 기본전제로 삼고, Mankiw의 10대 원리 중 1, 2, 6을 제외한 7개에다가 1.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선택하라(비교우위의 원리). 2. 모자라면 비싸지고 남으면 싸진다(수요공급의 이론). 3.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의 셋을 추가한 것이다.

3. 경제시사토픽

전통적인 원론 토픽과 연관되고 핵심적인 경제원리를 생생하게 조명해 주는 경제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신문과 인터넷 경제사이트는 뉴스, 해설기사, 사설, 경제논평, 쟁점대비, 통계제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것들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생생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못지 않게 다양한 경제시사 토픽에 대해 교수, 연구원, 관료, 기자들이 활발하게 논평을 내고 쟁점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들 중 경제원론 수준에 맞고 알찬 글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안국신 · 이종철 · 김형진(2000)은 최근 2~3 년간 몇몇 신문에 실린 경제관련 글들을 추려 경제학 읽을거리를 만들었다. 기간과 필진, 자료를 확대하면 훨씬 재미있고 적절한 읽을거리가 많이 발굴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경제학회 산하 경제학교육위원회가 모든 경제 관련 기고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원론 각 분야에 걸맞은 글들을 추천 받아 엄선하여 『경제원론 읽을거리』를 펴낼 것을 제안한다. 이는 경제학이 딱딱하고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수강자가 느껴 온 것을 묽게 하는 하나의 유력한 방안이다. 찾아보면 우리경제 현실에 적합하고 흥미있는 읽을거리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 이를 잘 간추려 활용할 때가 되었다.

4. 네트워크 경제와 정보경제학의 기초

현대는 정보사회이다. 갈수록 지식기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도 있다. 정보통신혁명과 네트워크(network)의 발달이 가속되고 있는 오늘날, 이에 대해 경제원론이 다루지 않는다면 경제학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다.

정보와 지식의 구분은 다분히 자의적이고 아직 이론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정보와 네트워크에 관하여 경제학은 다른 학문이 제시해 주지 못하는 독특하고 체계적인 이론 틀을 제시해 주고 있다. 네트워크 경제의 길잡이로 나온 Shapiro and Varian(1999)은 네트워크 경제에 관한 경제학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 알기 쉽게 소개해 주고 있다. 국내에서 나온 類書로는 손용엽 · 이상호(2001)가 있다. 이들 책

의 정수를 쉽게 풀어 경제원론의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타

전통적인 원론 토픽들과 기본적인 경제원리들을 다루면서 경제사·경제사상사의 단편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체제·제도·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가 이전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도래하는 후기산업사회, 혹은 정보사회가 지금까지의 이른바 산업사회와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다. 대공황과 초인플레이션이 사회를 얼마나 황폐시킬 수 있는가를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보여 준다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생생한 교육이 될 것이다. Heilbroner(1980), Buchholz(1989), 유시민(1992) 등은 재미있는 경제사상서이다. 이 책들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 경제사상의 흐름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소재인가를 실감나게 가르쳐 줄 수 있다.

어느 경제든지 전통경제, 계획경제, 시장경제의 세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계획경제가 주축이 되는 사회주의경제가 시장경제가 주축이 되는 자본주의경제에 체제경쟁에서 지게 된 배경, 자본주의 일극체제하의 세계화의 허실, 제도와 문화의 중요성 등을 경제원론의 시작 부분이나 말미에 다루는 것은 경제학이 인식 폭이 좁고 역사의식이 없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키면서 수강생들에게 폭넓고 균형된 시각을 갖게 해 줄 것이다. 시장의 논리, 기업과 기업인의 역할 등을 현실성 있게 가르쳐 주는 것도 나중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게 될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현실감각을 심어 줄 것이다.

경제홍보기획단과 KDI 경제정보센터가 펴 낸 『경제상식, 다시 생각해 봅시다』를 클라스 읽을거리와 토론 토픽으로 이용하는 것도 우리 경제현실을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Ⅲ. 經濟原論, 어떻게 敎育할 것인가?

경제학 교육의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어렵다, 재미없다,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쓸모 없다 등이다. 경제원론 교육이 이런 문제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물론

이다. 앞 절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경제논리, 경제시사토픽, 네트워크 경제의 기초 등을 다룬다면 경제원론 교육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쓸모 없다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어렵고 재미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경제원론을 교육해야 한다는 자명한 명제를 얻을 수 있다. 즉, 경제원론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愚問에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賢答을 즉시 제시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가르쳐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느냐이다.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손정식(2000), 홍덕기(2000) 등이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것들을 토대로 하여 바람직한 교육방법을 종합적으로 논해 보도록 한다.

1. 야심적인 진도 위주의 강의를 지양한다

두꺼운 교재의 대부분을 충실하게 다루어 준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로 매진하는 강의는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양해야 할 제1호 목록이다. 경제원론의 전통적인 토픽을 기본적인 경제원리와 결부시켜 다루면서 최대한 단순하게 煎指해야 한다. 경제원론에서는 전체 숲을 잘 그려주면 된다. 개개 나무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중급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에서 다시 다룰 단계까지의 깊이에 이르지 말고 조감도를 그려주되 핵심적인 경제원리의 응용사례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접근방식이 바람직하다.

2. 주입식 강의로 시종하지 않고 다양한 쌍방향 소통 방식을 도입한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종래의 일방적 강의는 야심적인 진도 위주의 강의에 버금가게 딱딱하고 비효율적이게 마련이다. 자주 다양한 쌍방향 소통방식을 구사하는 것이 경제원론 강의가 단조롭지 않고 재미있게 만드는 첩경이다. 경제원론에 적합한 내용의 비디오를 보여 주고 소감을 발표하게 하는 것, 경제시사토픽이나 Jevons의 경제학 소설과 같은 읽을거리를 미리 지정하여 클라스 토론을 벌이는 것, 2~3 인이 한 팀이 되어 학기 초에 내 준 팀 프로젝트를 10~15분에 걸쳐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 손정식(2000)이 제안하는 것과 같은 경매 게임을 벌이는 것, 최저임금심의나 예산심의와 같은 큰 주제를 주고 노사정, 혹은 여야·

학계의 입장으로 나누어 대토론회를 갖는 것 등이 쌍방향 소통 방식의 예이다.

3. 강의를 비근한 예를 들어가며 유머 있게 한다

김진배(1997), 한정선(1999), 김상규(2000, 2001), 홍덕기(2000) 등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강의가 쉽고 재미있기 위해서는 비근한 예가 많고 유머가 있어야 한다. 강의내용과 관련되는 비근한 사례, 속담, 재치 있는 농담 등을 적절히 조합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수강생들이 재미있게 들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무미건조한 강의, 따분한 강의는 죄악이거나 낭비라는 각성과 분발이 필요하다. 내용이 문제이지 형식은 신경쓸 것 없다는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

4. 특강·견학 등을 활용한다

경제원론을 다루어 나가면서 시사적인 토픽들이 나올 때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듣거나 현장을 견학하면 생생한 교육이 될 것이다. 예컨대 독과점 규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특강을 듣고, 재정을 다룰 때에는 기획예산처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예산 및 재정 현황에 대한 특강을 들으며,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을 다룰 때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가에 대해 특강을 듣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농수산물 도매시장, 증권거래소 등을 견학하고 현지에서 특강을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특강이나 견학 등은 한 학기에 한 두 번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한 두 번의 행사라도 현실경제를 더 실감 있게 경험하는 청량제 구실을 할 것이다.

5. 인터넷과 컴퓨터를 적극 활용한다

현대 정보사회의 필수수단인 인터넷을 적극 활용한다. 교수 Homepage에 강의계획서는 물론이고 강의 공지사항, 과거 시험문제와 정답, 과목게시판 등을 올려놓는다. 시사토픽의 읽을거리들도 링크시켜 올려놓는다.

경제학에 표와 수식이 많이 나오고 이것이 수학이나 통계학을 싫어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어렵게 각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와 그림, 수식 등은 흑판보다 OHP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세련된 교육방법이지만 OHP로도 학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게 다가가기가 어렵다. 그러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 주면 이해하기 쉽고 학생들이 신기해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 예컨대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변하면서 전체 기업의 수입이 변하는 양상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반 세기동안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거시변수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해 왔는가를 실감 있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다.

근래에 이런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2~3년 안에 경제원론 중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킬레스 건' 들을 아주 쉽게 깨우쳐 주는 소프트웨어가 완전 개발될 전망이다. 교수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2~3인이 한 팀이 되어 클라스 시간에 발표케 하는 목록 중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쉽게 이해시키는 아이디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6. 강의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교수들간 강의자료를 공유한다

지금까지 대다수 경제학 교수들이 과목을 가르칠 때 강의준비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인색하였다. 다른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연구와 논문작성, 책 저술이 어디까지나 主이고 가르치는 것은 從이라는 생각이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경제학이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교수마저 가르치는 것 자체에 대한 우선순위와 정성이 낮기 때문에 설상가상이 되었다.

이제 적어도 경제원론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경제원론을 잘 가르치는 것이 경제학계의 중흥과 직결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강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말처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려는 열의와 정성이 있으면 예전보다 괄목상대로 쉽게 가르칠 수 있다. 앞서 말한 다양한 쌍방향 소통방식을 도입하고 강의를 비근한 예를 들어가며 유머 있게 해야 한다는 명제도 충분한 강의준비와 시간투자가 있어야 내실 있게 달성될 것이다. 1주일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의 학생면담시간을 지키며, 과목게시판에 올라 온 질문과 건의에 대하여 즉각 대처하는 성의도 표시해야 한다.

경제원론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데에 필요한 자료들을 담당교수들이 공유하

는 것은 외부경제를 일으키는 좋은 방법이다. 한국경제학회나 경제학교육위원회가 경제원론과 관련된 독자적인 Homepage를 만들고, 전국 각 대학에서 경제원론을 가르치는 교수들과 대화마당을 마련하여 이런 자료 집적과 전파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원론 최우수 교육상'(가칭)을 제정하여 청람상과 더불어 한국경제학회가 매년 시상하고 수상이 승진에 반영토록 힘쓰며, 최우수 교육의 노하우를 널리 알려 활용케 하는 것도 경제원론을 잘 가르치게 만드는 한 가지 유인이 될 것이다.

Ⅳ. 經濟學 敎育與件의 改善

이제 경제학과 경제원론이 사회와 학생으로부터 국제화시대에 더해 가는 중요성에 걸맞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에 관해 논해 보자. 현재의 열악하거나 적어도 비우호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1. 고등학교 사회교육의 개선

고등학교의 정치 경제 혹은 사회과목에서 배우는 경제가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어렵다. 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때부터 경제가 어렵고 싫은 과목으로 인식된다. 경제의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확실하게 그려주고, 세부적인 것은 다루지 않도록 고등학교 교과내용과 대학 수능시험이 대폭 바뀌어야 한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2. 경제원론 교재의 개선

현재 나와 있는 국내 교과서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두껍다.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불만은 크다. 좀 더 이해하기 쉽고 그러면서도 輕便한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이 상호모순 되는 듯한 명제는 종전처럼 경제원론 교과서에 모든 것을 집대성하던 것을 과감하게 줄이고 경제원론 Homepage를

만들어 활용하며 필요하면 전자책(e-book)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 경제원론 교과서는 앞의 Ⅱ절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경제원리와 최소한의 전통적인 경제원론 토픽, 그리고 네트워크 경제와 정보경제학의 기초이론만을 다룬다. 이것들에 대한 부연설명과 다양한 연습문제, 경제시사 토픽 등을 경제원론 Homepage와 전자책에서 다루면서 수시로 바꿀 수 있게 한다.

외국교재처럼 PDF파일을 만들어 가르치는 교수들이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는 서비스도 경제원론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경제원론 사이버 콘텐츠 개발

컴퓨터를 이용하는 우수한 사이버 콘텐츠는 경제원론을 다른 어느 과목 못지 않게 흥미진진한 과목으로 만들 수 있다. 학술진흥재단이 2000학년도부터 '대학교육 디지털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서울대가 2000년에 경제학개론 과목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해 사이버 강의를 실시하겠다고 학술진흥재단에 신청하였다. 각 분야의 지원신청이 몰려 지원과제로 채택되지는 못하였지만 경제학 분야에 곧 지원차례가 올 전망이다. 여러 대학이 경제원론, 국제금융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학 과목 콘텐츠 개발을 경쟁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양한 경제원론 콘텐츠가 나와 경제원론을 강의하는 교수들이 활용하면 경제원론 강의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대사회에서의 경제와 경제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원론 콘텐츠 개발은 수학과 통계학의 콘텐츠 개발과 더불어 한 두 곳에 일임할 일이 아니다. 학진과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민간기업들이 적어도 서너 곳에 다양한 형식의 경제원론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적인 콘텐츠 개발은 콘텐츠 품질을 제고시켜 국내 소비자후생을 높이는 한편 세계시장에서의 상업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제학 검정시험제도 도입

이지순(2000)은 지구촌 경제시대에 경제원론이 일종의 기본언어라는 것을 사회에 인식시켜 취업이나 관리선발 등에서 Test of Economic Proficiency(TOEP)를

요구하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참신하고 장기 과제로 추진할 만 하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실력을 판정하는 경제학 검정시험제도가 2002년 봄부터 시작된다고 보도되었다. 우리 학계에서도 일본과 같은 경제학 검정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그 결과가 기업채용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지구촌 경제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일이다.

5. 전문대학원제도 지향

경제학이 장기에 인기학문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지름길은 경영학과 법학의 학부과정을 없애고 경영대학원, 법학대학원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유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언론학과마저 언론대학원으로 통합되어 있는 대학이 많다. 회계사와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전문대학원제도는 지망생들로 하여금 학부시절에 정치학·사회학·심리학 등은 물론 사회과학의 기초학문인 경제학을 폭넓게 이수하게 유도한다. 그리하여 전문가들이 폭넓은 상식과 균형감각을 갖추게 만든다. 미국의 유수대학에서 경제원론 수강생들이 매년 수천 명에 이르는 것은 전문대학원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대의명분과 좋은 유례가 있는 만큼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도록 경제학계 전체가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야 한다.

V. 맺음말

경제원론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학기초에는 작년보다 좀 더 잘 가르쳐야지 하는 새로운 포부와 설렘으로 강의에 임한다. '좀 더' 잘 가르친다는 포부는 종전의 교육자산재고에 '약간의'(marginal) 노력을 덧붙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강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학년생들의 산만함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시들함과 타성으로 복귀한다. 그리하여 학기말 강의 평가에 '약간의' 개선이 있으면 좋고 안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거의 매년 경제원론을 가르치는 필자가 겪는 주기이다. 아마도 경제원론을 가르치는 많은 교수들이 필자와 비슷한 주기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우리 경제학 교수들의 관성과 시대적 변화가 어우러져 경제원론은 서서히 사양과목이 되어 왔다. 이제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홍덕기(2000)는 강의에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귀감이다. 이렇게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현저한' 노력을 강의에 기울여야 한다. '약간의' 추가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홍덕기(2000), 손정식(2000)이 보고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현저한 노력을 강의에 기울이면 수강학생 수가 크게 늘고 학생들의 참여도와 반응, 강의 평가도 좋게 나온다. 이는 복잡다단한 현대 경제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경제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학생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경제원론은 수많은 교양과목 중에서 '현대사회와 성'처럼 자연스럽게 끌리지 않을지라도 한번쯤 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이 들게 하는 교양과목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관행은 경제원론을 이공계, 예체능계를 아우르는 교양과목으로서가 아니라 경제학과 지망생들을 상대로 중급미시경제학과 중급거시경제학을 배우는 기초과목이라는 생각으로 교육해 왔다. 소비자주권을 강조하는 경제학자들이 스스로는 고답적이고 오연한 판매자 시장의 멘탈리티에 젖어 온 것이다. 이제 구매자시장의 겸손한 판매자로 의식의 전환을 해야 한다. 경제원론을 쓸모 있고 재미있는 교양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은 경제학과 지망생들에게도 숲을 조망해 보고 직관력을 갖게 해 준다.

이런 반성을 바탕으로 이 글은 경제원론 과목을 무슨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해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기 보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집대성하는 평범한 내용이다. 내용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평범한 것이지만 내실 있게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계분석에 익숙한 우리 경제학자들이지만 강의 관행만은 불연속적 도약이 요구되는 21세기이다.

■ 참고문헌

1. 경제홍보기획단 · KDI경제정보센터, 「경제상식, 다시 생각해 봅시다」, 1999.
2. 김병주, "한국 경제학 교육의 나아갈 방향,"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2.
3. 김상규, "속담활용의 효과적인 경제학 개념 교육," 「경제학, 이렇게 가르치자」, 한국경제학회, 2000. 9. 4.
4. ———, 「도랑 치고 경제 잡는다」, 오늘의 책, 2001.
5. 김진배, 「성공하는 리더를 위한 유머기법 7가지」, 뜨인돌, 1997.
6. 손용엽 · 이상호, 「사이버시장의 경쟁원리」, 시그마인사이트컴, 2001.
7. 손정식, "재미있고 현실감 있는 경제원론 강의시간," 「경제학, 이렇게 가르치자」, 한국경제학회, 2000. 9.
8. 안국신, 「경제학 길잡이」, 율곡출판사, 2000.
9. ——— · 이종철 · 김형진, 「경제학 읽을거리」, 율곡출판사, 2000.
10. 유시민,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푸른나무, 1992.
11. 이준구, "한국 경제학 교육과 연구의 현황과 과제," 『주요국의 경제학 연구와 교육』, 서울대 경제연구소, 1989.
12. 이지순, "한국 경제학의 진로," 「IMF경제위기와 한국 경제학의 반성 및 과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1999.
13. ———, "경제학 교육 ·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제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한국경제학회, 2000. 6.
14. 이토 모토시게, 「시장의 법칙」, 조석현 번역, 창해, 1999.
15. 한정선, 「프리젠테이션 오! 프리젠테이션」, 김영사, 1999.
16. 홍덕기, "'한국 경제의 이해' 교육방법 개선사례," 「경제학, 이렇게 가르치자」, 한국경제학회, 2000. 9.
17. Buchholz, Todd, *New Ideas from Dead Economists*, 1989, 이순환 역,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김영사, 1994.
18. Heilbroner, R. L., *The Worldly Philosopers*, Fifth Edition, A touchstone book published by Simson and Schuster, 1980, 이덕형 역, 「경제학의 거인들」, 한국방송사업단, 1983.
19. Marshall Jevons, *Murder at the Margin*, 1993, 형선호 역, 「수요공급 살인사건」, 북 & 월드, 2001a.
20. ———, *The Fatal Equilibrium*, 1990, 형선호 역, 「효용함수의 치명적 유혹」, 북 & 월드, 2001b.
21. Shapiro, Carl and H. R. Varian, *Information Rules: A Strategic Guide to the Network Economy*,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9.